

장성군, '미식도시 장성' 실현 거점 조성 순항 중

옛 노인복지회관 건물에 '외식분야 창업 전문교육시설' 구축... 12월 개원 목표

장성군이 외식분야 성장·발전 거점시설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선공사를 진행 중인 외식분야 창업 전문교육시설이 오는 12월 무렵 개원할 예정이다.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 이후, 장성군은 출몰 관광분야 성장에 주력해 왔다. 백양사 연간 방문객 최초 100만 명 돌파,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및 가을꽃축제 성공 개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물론, 300억 원 규모 '장성 월드랜드' 조성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도 잇따라 선정돼 기대를 모았다.

관광 수요와 지역경제를 연계하는 열쇠는 '음식'에서 찾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한 음식 '붐'이 일면서, 백양사 사찰음식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동시에 청정 환경에서 자란 장성산 먹거리도 화제의 중심에 섰다.

농가 직거래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장성로컬푸드 협단

직매장'이 개장 3년 만에 누적 매출 300억 원을 돌파하며 이러한 인기를 입증했다. 군은 올해 농가 레스토랑 '장성향상'을 열어 '장성 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이을러, 장성군은 내부 회의,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2024년, 옛 노인복지회관(장성을 문화로 110)을 활용해 외식분야 창업 교육시설을 구축하기로 하고 '리모델링(수선) 공사 실시계획' 등 필요한 용역을 진행했다.

수선 공사 규모는 용역 결과에 따라 34억 원으로 책정됐다. 옛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 지 23년 된 노후 건축물이며서 △별책 단열기준 충족 △방수·창호·전기·통신·가스 등 시설 보강이 불가피했다. 지난 5월부터 착공에 들어갔으며, 11월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교육시설은 지상 2층 1133㎡ 규모로, 1층에는 조리교육장, 회의실, 사무실 등이 들어선다. 2층에는 베이커리·카페 교육장, 쿠킹 스튜디오 등을 갖춘 계획이다. 운영 방식은 군 직영과 위탁기관·단체 공개 모집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022년 노인회관 신축으

로 쓸모를 잃었던 옛 노인복지회관이 '미식도시 장성' 실현의 거점으로 거듭나게 됐다"며 "장성지역 창업인재 육성, 특화음식 개발 등 청년 창업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보성군, 차밭을 품은 '붓재' 3층 카페로 새 단장 차밭 전경과 빛의 향연 어우러진 복합 문화 휴식 공간 탄생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3일 붓재 3층을 전면 리모델링해 차밭 경관과 빛의 연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카페 공간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은 군민과 관광객이 보성의 대표 관광지인 차밭의 절경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벽체를 절거해 탁 트인 개방감을 확보하고, 세계질마다 다른 색으로 물드는 차밭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카페 내부는 '물결'과 '반딧불'을 형상화한 조명(고보라이트)이 설치돼, 은은한 빛이 공간을 물들이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한, 기존 전시 공간은 '우주를 모티브로 한 고보라이트로 꾸며져,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붓재 3층에서는 2층 '그린다향'에서 주문한 음료를 즐길 수 있다. 그린다향의 메뉴는 보성의 특산물인 말차를 활용한 말차아이스크림라떼, 말차 흑당버블, 말차팍빙수 등을 비롯한 음료 46종과 디저트 7종으로 구성됐다.

군 관계자는 "붓재는 보성의 관문이자 첫인상을 결정짓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이번 카페 리모델링을 통해 경관·빛·맛이 어우러진 복합 힐링 공간이 마련된 만큼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붓재를 비롯해 한국차박물관, 울포해수욕장센터 등 주요 관광지의 연계 홍보를 강화해 '녹차수도 보성' 브랜드 가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마스코트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광양시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의 주제는 광양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마스코트 디자인이다. 성별과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캐릭터와 중복되지 않는 독창성을 갖추고, 광양시 SNS 캐릭터 '매돌이'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스토리텔링도 심사의 핵심 요소로, 캐릭터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매돌이'와 세계관을 공유하며 확장 가능한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

광양시, 전 국민과 함께하는 '마스코트 디자인 공모전'

총상금 1,400만 원, 시민 선호도 조사와 전문가 심사 거쳐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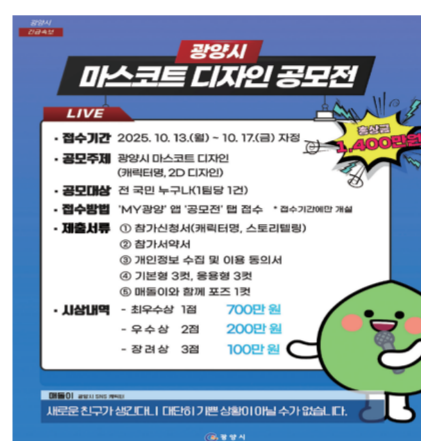
접수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MY광양' 앱에서 진행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1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출품파일과 신청서류를 압축해 제출해야 한다.

출품파일은 기본형 3컷, 응용형 3컷, 매돌이와 함께한 포즈 1컷으로 구성해야 한다. 해상도는 300dpi 이상이어야 하며, 파일 형식은 JPG·JPEG·PNG여야 한다. 규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시민 선호도 조사 50%와 전문가 심사 50%를 합산해 진행된다. 총상금

은 1,400만 원으로, 최우수상 700만 원(1점), 우수상 각 200만 원(2점), 장려상 각 100만 원(3점)이 수여된다. 결과는 11월 25일 'MY광양' 앱과 광양시 누리집에 공지되며, 개별 통보도 이뤄진다. 선정된 작품은 향후 광양시 공식 마스코트 운영에 활용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앞으로 광양시를 대표할 새로운 마스코트를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독창적인



캐릭터가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완도군, 30년 이상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본격 추진

완도군은 군이 보유한 보존 기간 30년 이상의 보상 관련 중요 기록물 약 4만 면을 대상으로 전산화 데이터 베이스(DB)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오랜 기간 보존되어 온 중요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산화 대상 기록물은 고해상도 스캔을 통해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되며,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인 '메타 데이터'를 항목별로 구축해 검색 기능이 강화된다.

사업을 통해 기록물 훼손 방지와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민의 권리와 직결될 수 있는 보

상 관련 기록물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민원 처리 효율성과 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디지털 기반의 기록 관리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석 행정지원과장은 "기록물 전산화는 단순한 보존을 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면서 "사업이 군민과 행정 간 신뢰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장성우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화순군, 전 국민 대상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화순사랑상품권' 1인당 10만 원, 9월 22일부터 지급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약 62억 원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연계하여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 정책을 뒷받침하고,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순군 민생안정지원금은 7월 31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기일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기간에 맞추어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 1일 개최한 제276회 화순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화순/김중환 기자

영광군,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고독사 위험군 선제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독사 위험군 선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독사 위험군 판단 도구를 활용해 △주거형태 △1인 가구 사유 △위험 정도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는 2025년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병행하여 추진되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이장, 우리 동네 복지공동체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이 참여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조사 가구 중 주소 미

이전 가구나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자를 확인하여 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민원이 예상되는 가구는 2인 1조로 공무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준수하고,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며 진행할 계획"이라며, "1인 가구라는 이유만으로 문제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내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영광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지역사회 연계 지원, 정기적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